

건설동향브리핑

제555호 (2016. 4. 4)

■ 정책 · 이슈

- 2016년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III)

■ 경영 · 정보

- 2016년 싱가포르 건설시장, 전년비 26% 확대 예상
- 2016년 영국 주택시장 상승세 지속, 규제는 강화될 전망

■ 경제 동향

- 3월 CBI, 전월비 0.6p 상승한 81.4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건설산업은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년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III)¹⁾

-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분야, 지역 건설사업 연계 기대 -

■ 지역 건설산업의 틈새 상품 발전 가능

- 정부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건설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역 건설산업에게는 농림어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다수 과제로 제안되어 이슈화되지 못하였고²⁾ 건설산업과의 관련성도 낮음. 하지만, 지역 친밀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 대책 속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틈새 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함.
-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는 다시 민간투자 활성화, 6차 산업화, 수출상품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의 4대 분야와 64개 과제로 나뉘며, 이 중 농업특화단지 조성, 산지의 효율적 활용, 농어촌 관광 활성화, 주택 및 농지 취득 지원 등의 과제가 지역 건설산업과 관련됨.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6.2조원+ α 의 투자효과 및 일자리 창출

투자과 일자리 기회가 많은 새로운 분야 육성 집중

- | | | | |
|--------------|--------------|--------------------|------------------------|
| • 농업특화단지 조성 | • 농어촌 관광 활성화 | • 수출인프라 강화 | • 주택 및 농지취득 지원 |
| • 양식업선진화 | • 가공·판매역량 강화 | •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역량 강화 | • 귀농·귀촌 인프라 및 교육 지원 강화 |
| • 산지의 효율적 활용 | • 전통주 경쟁력 강화 | • 유기농산물 활성화 | •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
| • 농수산물채취 활성화 | | | • 어업진입장벽 해소 |

1) 본고는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총 4회로 나누어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3회차임.

2) 이번에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양재·우면 R&D 직접단지 등 6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과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이 주목받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척 분야의 공유경제, 대학 해외진출 등의 과제도 이슈화됨.

■ 관련 과제

- 농업특화단지 조성 :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의 구축을 지원하는 과제. 경기도 화성의 화옹간척지와 새만금 지역을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
- 산지의 효율적 활용 : 국공유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민간자본을 통한 ‘식물활용 6차 산업 복합단지’, ‘고산식물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농어촌 관광 활성화 : 숙박, 음식,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의 신설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어항의 복합·관광자원 육성도 계획돼 있음.
- 주택 및 농지취득 지원 :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단지형 귀농 귀촌 주택 공급’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LH공사가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임.

■ 지역 건설사업 연계 기대

-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이 제기한 규제 완화사항을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그대로 두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그동안 미진하게 추진된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림어업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도 지역 건설산업의 사업 기회로 연계되기를 기대함.

■ 규제 완화만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한계, 유명무실화 가능성 있어

- 하지만, 이번 대책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악화와 공공투자 여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라는 다소 손쉬운 방법만을 제시했다는 점이 아쉬움.
- 투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완화는 그 효력이 커도, 작아도 문제가 됨. 즉 규제 완화의 효력이 클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반면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투자에 실패하여 대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2016년 싱가포르 건설시장, 전년대비 26% 확대 예상

- 한국 건설기업, 리스크관리 역량 확보로 수익성 강화해야 -

■ 정부 차원의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2020년까지 시장 규모 지속 확대 전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 2위, 한국은 26위를 기록하였음. 국가경쟁력은 인프라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투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민간 시장의 성장이 다소 정체되면서 인프라 사업 중심의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계획이 확대될 것임.
- 2016년 건설시장은 270억~34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5.9%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 건설시장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으로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임.

<2015년과 2016년의 부문별 시장 규모(공공/민간)>

(단위: 십억 싱가포르 달러)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Institutional and Others		Civil Engineering		Total		Both Sectors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Total
2015년	3.81	3.96	0.3	1.89	1.24	4.53	4.09	1.74	3.81	1.66	13.25	13.78	27.03
2016년	4.5 - 4.7	2.0 - 3.4	0.1 - 0.2	1.8 - 2.3	1.7 - 2.0	2.3 - 3.4	3.2 - 4.2	0.7 - 1.0	9.0 - 10.4	1.7 - 2.5	18.5 - 21.5	8.5 - 12.5	27.0 - 34.0
증감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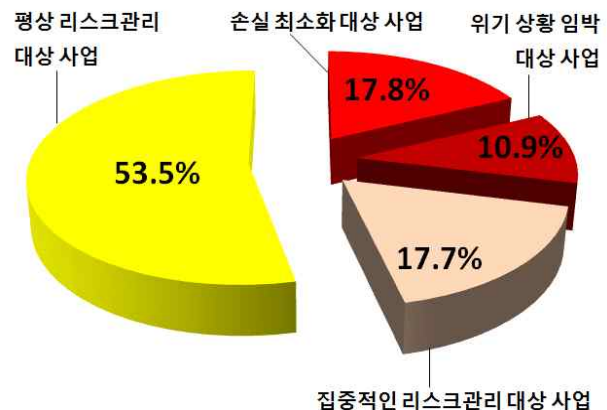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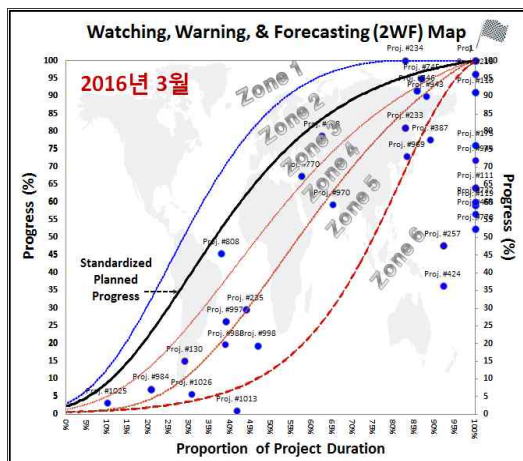
자료 : 싱가포르 건설청 (www.bca.gov.sg)

■ 싱가포르 공사현장 어려움 많아, 프로젝트관리 중요성 부각

- 싱가포르의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국내 건설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 및 수행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싱가포르 건설시장의 정책적 환경은 안정적이지만, 원활한 인력수급 및 발주자의 요구 사항 충족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프로젝트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건설시장의 엄격한 제도, 자국기업 보호정책, 기업 간 경쟁심화 유도 등의 특징은 국내

- 건설기업이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잠재 리스크 현황을 살펴보면, 손실 최소화 및 집중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약 46.5%를 차지하고 있음.

<2016년 1분기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사업의 잠재 리스크 포트폴리오>



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에 구축한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를 운영한 결과로, 국가별 · 기업별 · 공종별로 결과가 세분화될 수 있음.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속적 시장 확보 전략과 리스크관리 역량 동시 강화해야

- 불안정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싱가포르 건설시장은 정부 주도하에 안정적 규모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기업은 우위적인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절실함.
 -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사업 수주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주 확대 전략은 반드시 수행 역량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 주도의 엄격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젝트관리 및 리스크관리 역량 확보가 건전한 시장 선점의 시금석임.
 - 공기지연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급사업 중심의 프로젝트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절실한 시점임.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손실의 최소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확보를 가속화할 것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2016년 영국 주택시장 상승세 지속, 규제는 강화될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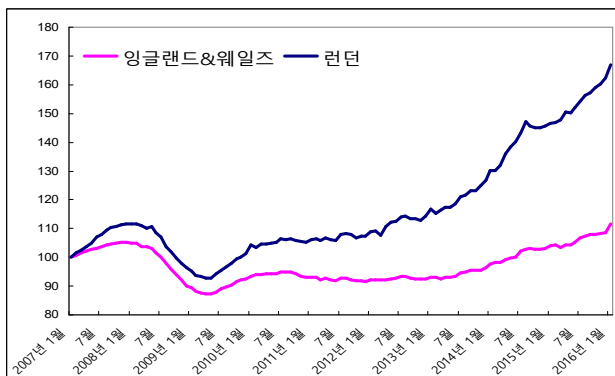
-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확대, 금융·세제 규제 강화 -

■ 작년 12월 들어 가격지수 하락세, 대세 전환 판단은 추가 모니터링 필요

- 지난 7년 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런던은 급등세 지속
 - 2016년 1월 토지등록청(Land Registry)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2.5%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지난 12개월 동안 7.1% 상승함.
 - ※ Land Registry의 주택가격지수는 토지등록청에 등록된 실거래가격에 기초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대상으로 함.
 - 2009년 3월 전저점 기록 후, 7년 여간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저점 대비 27.8%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런던 주택가격 상승세는 가팔라 전저점(2009년 4월) 대비 80.1% 상승함.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전역 주택가격지수는 2015년 12월 들어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대세 반전 여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주택저당대출회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영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영국 전역 주택가격지수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 전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40.2% 상승함. 다만, 2015년 12월 들어 0.4% 하락하며 8개월 만에 하락함.
 - 그러나, 계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수이며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추세 전환 판단은 성급함.

<토지등록청의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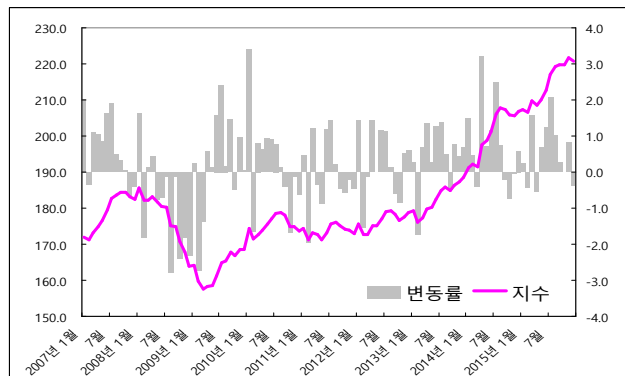
(2007년 1월 = 100)



주 : 계절조정 전, 모든 유형의 주택 포함.
자료 : Land Registry의 England and Wales, London 주택가격지수

<통계청의 영국 전역 주택가격지수 및 변동률>

(2002년 2월 = 100, 단위 : %)



주 : 계절조정 전, 모든 유형의 주택 포함. 변동률은 전월대비임.
자료 : National Statistics의 UK 주택가격지수

1) 본 고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자산시장 버블붕괴 여부 점검 차원에서 미국 주택시장과 영국 주택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2회로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2회차로 영국 주택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음.

■ 재고주택 거래 소폭 감소, 신규주택은 공급 지속

- 2016년 1월 주거용 자산 거래(잠정치)는 전월 대비 27.5% 감소하였으나, 계절 조정을 실시하면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 영국 국세청이 발표하여 거래가 완료된 건으로 주택가격 4만 파운드 이상만을 대상으로 함.
- 거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잉글랜드에서 27.4% 감소하였고 웨일즈 36.4%, 북아일랜드 31.3%, 스코틀랜드 22.5% 감소함.
- 다만, 계절 조정된 거래량 수준은 호황기인 2013년에서 201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4/4분기 잉글랜드의 착공 및 준공 물량은 전 분기 대비 5%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함.
 - 착공 물량은 3만 7,080호로 전 분기 대비 6.4%, 준공 물량은 3만 7,230호로 전 분기 대비 5.5% 증가함.
 - 착공 물량의 현재 수준은 2009년을 넘어섰으나, 전고점인 2007년에 비해서는 24% 낮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착공 물량은 201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세제 · 금융 규제 강화에도 2016년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대세

-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 부족, 인구 유입, 소득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 2016년 4월부터 취득세 인상 조치가 예정돼 있으나 연간 2~6% 내외의 상승이 예상됨.
 - 영국 내 전망기관들의 2016년 영국의 주택가격 전망치는 2~6%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 Halifax 4~6%, Nationwide building society 3~6%, RICS 4%, Capital Economics 2% 등
 - 세제 변화에 따라 3월 이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전망이다.
- 최근의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영국 거시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2016년에는 버블 붕괴의 현실화보다 부동산시장의 규제 강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2015년 모기지 대출 기준 강화를 발표하면서 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부동산시장으로 지목함. 또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취득세를 2~10배까지 인상할 계획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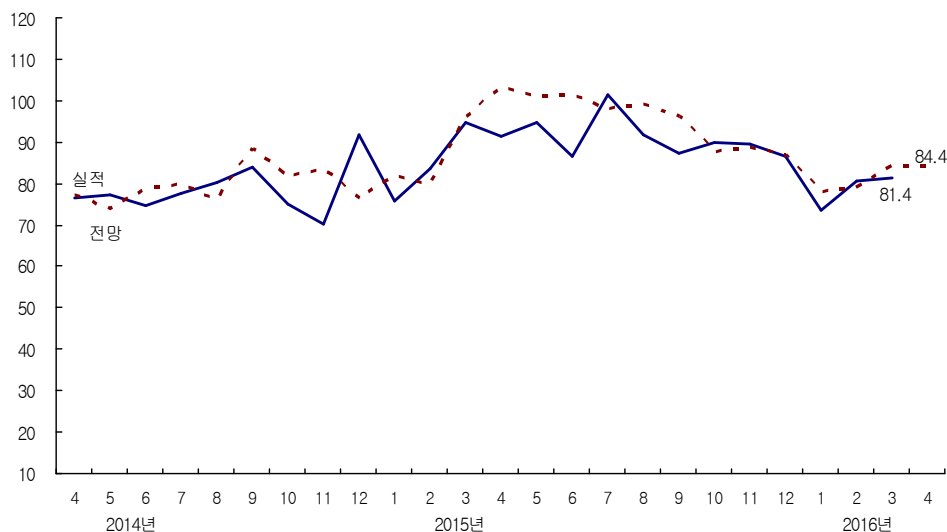
3월 CBSI, 전월비 0.6p 상승한 81.4

- 2개월 연속 상승, 지수 자체는 여전히 부진 -

■ 통계적 반락 효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2개월 연속 상승

- 2016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비 0.6p 상승한 81.4를 기록함.
 - CBSI는 2015년 11월 이후 주택경기 둔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전월인 2월에 통계적 반락 효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4개월 만에 7.3p 상승했음.
 - 3월에도 전월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이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 혹한기가 끝나 공사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계절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비 6.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3월 상승폭이 0.6p에 그쳤고, 지수 자체도 1, 2월을 제외하면 14개월 내 최저 수준에 불과해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CBI는 작년 7월에 주택경기 호조세, 공공 발주물량 소폭 회복 등의 영향으로 1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9월 이후는 감소세를 나타냈고,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대형기업 지수 상승,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비 상승했으나,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비 7.7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3월 CBI 상승을 주도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5.6p 하락한 83.3을 기록해 2개월 연속 80선에서 정체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0.6p 하락한 57.4를 기록해 여전히 체감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 규모별 CBI 추이>

구분	201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80.8	81.4	84.4	84.4
구 모 별	대형	115.4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100.0	84.6	92.3
	중견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8.9	83.3	97.2
	중소	82.0	65.3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8.0	57.4	69.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4월 전망치, 3월 실적치 대비 3.0p 높은 84.4

- 2016년 4월 전망치는 3월 실적치 대비 3.0p 높은 84.4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4월에는 건설경기가 3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4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망치의 상승폭이 크지 않고, 현재로서는 4월에도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없어 4월 CBI는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29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주관, ‘국토부 일자리 창출’ 관련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3. 30	건설근로자공제회	●‘제3차 공제부금 운용체계 개선 TF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4.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정부 계약 네트워크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공공공사 발주 방식으로서의 CM at Risk 도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고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가 도급사업을 대상으로 한 저가 수주 중심으로 이뤄져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건설기업들의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술력 향상 및 수익성 높은 사업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CM at Risk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미국의 CM at Risk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의 조건에 대해 살펴봄. ●국내 건설시장은 글로벌시장의 메커니즘과 매우 상이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환경은 발주자 재량과 무관하게 건설사업의 조건에 따른 획일적인 발주 방식 규정,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낙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창의성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움. ●미국에서는 현재 32개 주에서 공공공사에 CM at Risk 적용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발주방식 대비 우수 사업성과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사업의 CM at Risk 도입 확산을 위한 법안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에 CM at Risk 도입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계약자 등 참여 주체 간 역할 관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자 선정 및 수익계약, GMP 결정, 수익 공유 등 전통적 발주방식과 상이한 요소가 존재해 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공공사업의 CM at Risk 도입은 「국가계약법」을 포함한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관련 법령상의 여러 제약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법건설제도개선협의회’ 구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2차)」 개설

- 일정 및 장소 : 2016년 4. 5(화)~7(목),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내용 : BTO/BTL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실무 중심
- 신청 문의 및 참조 : 출판팀(Tel.02-3441-0691),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건설산업은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건설시장 침체가 건설산업의 지식과 경험을 승계할 젊은 인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의 성장을 막고 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는 전략적 차원에서 양성되는 것이다.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신규 조화를 갖춘 보유 인력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의 새로운 유입 장벽이 날로 높아지면서 현재 국내 건설기업은 실무 경험을 갖춘 중장년 세대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은 현재 유능한 젊은 인재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마저 여의치 않다. 오히려 건설기업은 최근 대규모 인력구조 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설기업의 경영과 새로운 활력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우려할 만하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혹은 ICT 부문의 유명한 기업인의 가장 출중한 업적은 20~30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젊은 인재가 가지고 있는 창의와 열정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경험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진 인력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첨단기술과 사고로 무장한 젊은 인재에게 사업의 중책을 맡기고 베테랑은 이를 후방에서 멘토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기업에게는 어려운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유능하고 창의적인 신규 인력 유입, 그리고 차세대 리더 양성은 국가 정책과 제도에 의한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설기업 최고 경영자의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판단과 안목이 필요하다. 건설기업은 막연하게 좋은 인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립해야 하고 이를 대학과 학생에게 요구해야 한다. 산학 협력의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은 대기업만을 희망하는 문제점도 있다. 대중소 건설기업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다.

신규인력의 진입은 중소 건설기업에서부터 시작하고 일정 경력 이후 대형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다리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항상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타 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국내외 기업의 눈부신 성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시장이 아닌, 기업 내부의 창의적인 인재가 만든 새로운 시장에서 이뤄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인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2016. 4. 4>

최석인(기술정책연구실장 · sichoi@cerik.re.kr)